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건강상담 · 보건교육 운영

산업재해 예방 · 교육기관 현장안전보건 문화 조성
도교육청, 내달부터 12월까지... 대면 · 비대면 병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월부터 12월까지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교육기관(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의 유해·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건강상담은 본청에서 산업보건의로 위촉한 예방

의학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최근 2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질환 확인과 건강관리 지도를 해준다.
운영방식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다. 대면 방식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기관(학교)에서 건강상담을 신청하면 산업보건의와 일정 등을 협의 후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건강상담을 신청하면

산업보건의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상담가능한 전문분야는 뇌졸중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질환과 직업병 관리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산업재해 사례를 통한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 △직업성 질병예방 및 보호구 착용·관리 교육 △건강진단에 따른 건강관리 교육 등이다.
도교육청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운영이 현업업무종사자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관리 업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3일 2023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랑과 열정 보여주시길”

서거석 교육감,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층 강당에서 교장·원장, 교감·원감, 수석교사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창교, 지원청 교육장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신입 기관장을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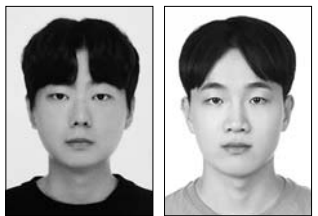
해 교(원)장 52명, 교(원)감 40명, 수석교사 3명, 교육전문직원 42명 등 총 137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초·중·고(별관) 시청각실에서 유·초·중등 신규교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을 진행했다.
유치원교사 23명, 초등학교 37명, 중등학교사 51명 등 총 111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중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에 발령받은 교사는 교육지원청별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규교사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이후 3월1일부터 도내 유·초·중등학교에 배치돼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서 거석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승진 및 전직을 통해 새로운 임지로 가는 교장과 교감, 교육전문직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신규교사 여러분들이 전북교육의 희망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학생들을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침수피해 예방 그레이팅 불능해소 장치 제작 ‘호평’

전북대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종합설계경진대회서 입상



김민형

박세웅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대한환경공학회 대학생종합설계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창의력과 설계 능력을 갖춘 환경공학인 양성을 위해 환경공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들이 직접 기획, 설계, 제작한 설계물을 통해 미래 환경공학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플러버블 팀'(김민형(팀장), 이승지, 채지원, 한진수 / 지도교수 김민식)이, 장려상은 '1도탑'(박세웅(팀장), 이정민, 김상태, 이창현 / 지도교수 장현민)이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플러버블팀은 컨트롤러 기반 그레이팅 배수 불능 해소 장치인 '체널 메이커(Channel maker)'를 제작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됐을 때 그레이팅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물리적으로 밀어내기만 해도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에 따르면 컨트롤러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폭우 시 쓰레기로 인해 그레이팅이 배수 불능 상태이면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파이프가 올라간다. 파이프의 구멍과 파이프가 뚫은 공간으로 물과 작은 쓰레기 작은 쓰레기(낙엽, 담배꽂초 등)가 제거되며 일정 시간 올라간 상태를 유지한 후 파이프가 하강하고 다시 배수 불능 상태가 감지되면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또 장려상을 수상한 1도탑은 빗인파 컬러의 원리를 이용한 LIPC(Low Electric Power Coder) 제품을 제작했다. 빗인파를 두 토기 사이 젖은 흙의 물이 증발하면서 작은 토기 속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내려주는 물의 기화열의 원리를 이용한 토기냉장고다.
1층 두 개의 흡입팬을 이용해 폐열로 달궈진 공기를 흡입, 2층 토기 위에 설치된 방출팬으로 인해 흡입된 공기가 토기 아래 구멍으로 빨아 올려지게 된다. 또한 2층에는 빗인파쿨러가 있어 달궈진 공기가 작은 토기 안을 통과하면서 기화열의 원리로 내부의 온도가 내려간 공기와 열교환이 일어나고 열교환이 일어나 시원해진 공기는 방출팬을 통해 밖으로 방출되어 쿨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다.
플러버블 팀의 김민형 학생(환경공학과 4년)은 "우리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고, 팀원들과 지도교수님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1도 팀의 박세웅 학생(환경공학과 4년)은 "작품 주제 선정부터 시연 작품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정말로 이 작품이 시제품으로 나오게 된다면 성능과 디자인을 보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글로벌 Top100 위상 위해 최선”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대학발전 이끌 1기 집행부 구성

전북대학교는 제19대 양오봉 총장과 함께 대학발전을 이끌 1기 집행부를 꾸렸다고 전했다.
23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학 본부 처장과 부처장 등 보직교수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교수회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신임 보직 교수들은 지난 22일 양오봉 총장으로부터 사령장을 받고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대학교는 제19대 양오봉 총장과 함께 대학발전을 이끌 1기 집행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먼저, 부총장단에는 교학부총장에 박영기 교수(공대 토목공학과), 연구부총장에 송철규 교수(공대 전자공학부), 대외협력부총장에 안국찬 교수(사회대 행정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처장급 인사에서는 대학원장에 이진숙 교수(생활대 아동학과), 교무처장에 이동현 교수(자연대 화학과), 학생처장에 김중석 교수의 대 의학과), 기획처장에 백기태 교수(공대 환경공학과), 산학협력처장에 손정민 교수(공대 자원에너지공학과), 연구처장에 이승재 교수(자연대 화학과), 입학처장에 주호종 교수(농생대 농생물학과), 국제협력처장에 조희남 교수(인문대 프랑스어학과), 혁신교육개발원장에 김현경 교수(사범대 화학교육과), 정보전산원장에 오일석 교수(공대 컴퓨터공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이어 부처장급 인사에서는 교원인사부처장에 박재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무학사부처장 겸 대학

원부원장에 김진태 교수(인문대 문헌정보학과), 학생지원부처장에 노원업 교수(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이공학과), 취업지원부처장에 황지욱 교수(공대 도시공학과), 기획예산처장에 박찬희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과), 성과관리부처장에 임태균(상대 회계학과), 공간기획부처장에 이재준(공대 토목공학과), 산학협력부처장 겸 산학진흥부처장에 박재병 교수(공대 전자공학부), 연구진흥부처장에 김희선 교수(간호대 간호학과), 연구지원부처장에 박삼복 교수(상대 회계학과), 입학부처장에 박병용 교수(수의대 수의학과), 국제협력부처장에 박성용 교수(사회대 정치외교학과), 국제협력부처장 겸 언어교육부처장에

양효령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홍보실장에 강성석 교수(사회대 심리학과), 발전지원부처장에 김명기 교수(의대 의학과), 연구윤리감사실 부실장(실장 직무대리)에 최혁용 특임교수(산학협력처), 혁신교육개발원 부원장에 홍득조 교수(공대 IT정보공학과) 각각 임명됐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 새롭게 임명된 보직 교수님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JNU Pride를 함께 만들어 갈 책임자"라며 "전북대학교가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허브로서 '글로벌 Top100'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제2회 전북 교육정책 콜로키움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2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제2회 전북 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주제에 대해 발표한 후 참여자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최신 교육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11 수업과 평가는 어떻게 할까?와 기초학력 책임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지원 요구 분석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다뤘다.
한숙경 소장은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이 국내·외 주요한 교육정책 흐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을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전북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매월 국내·외 교육동향 및 교육통계 자료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전북도교육청에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3학년도 입학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3일 황학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신입생 331명을 맞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주교대에 입학하는 학부 신입생은 300명,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31명이다.
이날 입학식은 △국민의례 △입학허가 선언 △선서 △네빈 및 보직교수 소개 △총장 훈사 △네빈 축사 △교수 소개 △교과 제창 순으로 진행, 신입생과 가족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박병춘 총장은 입학식 훈사를 통해 전주교대에서 예비교원으로서 학문의 길을 걷게 될 신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특히 "4년 동안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라"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대학에서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는 25일까지 전남 나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정은성 기자

도내 대학 곳곳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호원대학교는 23일 문화체육관에서 제87회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호원대, 학사 학위 1198명 배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3일 문화체육관에서 제87회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강희성 정은학원 이사장 김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군산시의장 서동석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체 수석으로 언어치료학과 박수빈 학생이 이시정상을 수상했으며, 학부 개별 수석자로 K-POP학과 김민서 학생의 수석은 총장상을 받았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항공관광학과 최정재씨가 75세의 나이로 최고령 졸업생 타이틀을 얻었다.

강희성 총장의 훈사를 시작으로, 강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23일 문화관 아트홀에서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우석대, 총 1224명 학위 받아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3년 만에 대면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문화관 아트홀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남천현 총장,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조준모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김성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1041명과 석사 107명, 박사 76명 등 총 1224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이지(제약공학과) 학생이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상을, 임지수(간호학과) 학생의 9명이 총장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대학원장상과 공로상·봉사상·특별상·총동문회장상·35사 단장상·7공수특전여단장상 등 우수 학생과 대학발전에 기여한 학생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